

## 소무의도의 즐거움

### 하나 ▶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는 트레킹

소무의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 '무의바다누리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기 만점 트레킹코스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떠 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무 사이로 걷는 길은 큰 즐거움이 됩니다.

### 둘 ▶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낚시

소무의도 주변은 낚시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광어, 우럭을 비롯해 싱싱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는 물론 배낚시까지, 강태공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 셋 ▶ 살아있는 바다의 모든 것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멀리 밀려나면 소무의도 주변에도 갯벌이 넓게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굴과 조개, 게, 낙지 같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갯벌 속 생명들과의 숨바꼭질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 넷 ▶ 바다 내음 가득한 싱싱한 밥상

바다에서 금방 건져올린 싱싱한 재료로 만드는 소무의도의 밥상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솜씨 좋은 섬사람들은 좋은 재료에 맛을 더해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 다섯 ▶ 조용한 섬마을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조용하고 소박한 섬의 풍경과, 넓고 시원한 바다는 도시 사람들에게 말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 소무의도 찾아오는길



### 잠진도선착장 오는 길

**철도**  
서울역 ..... 김포공항역 ..... 인천공항역 ..... 용유역  
공항공철도 이용 ..... 자기부상철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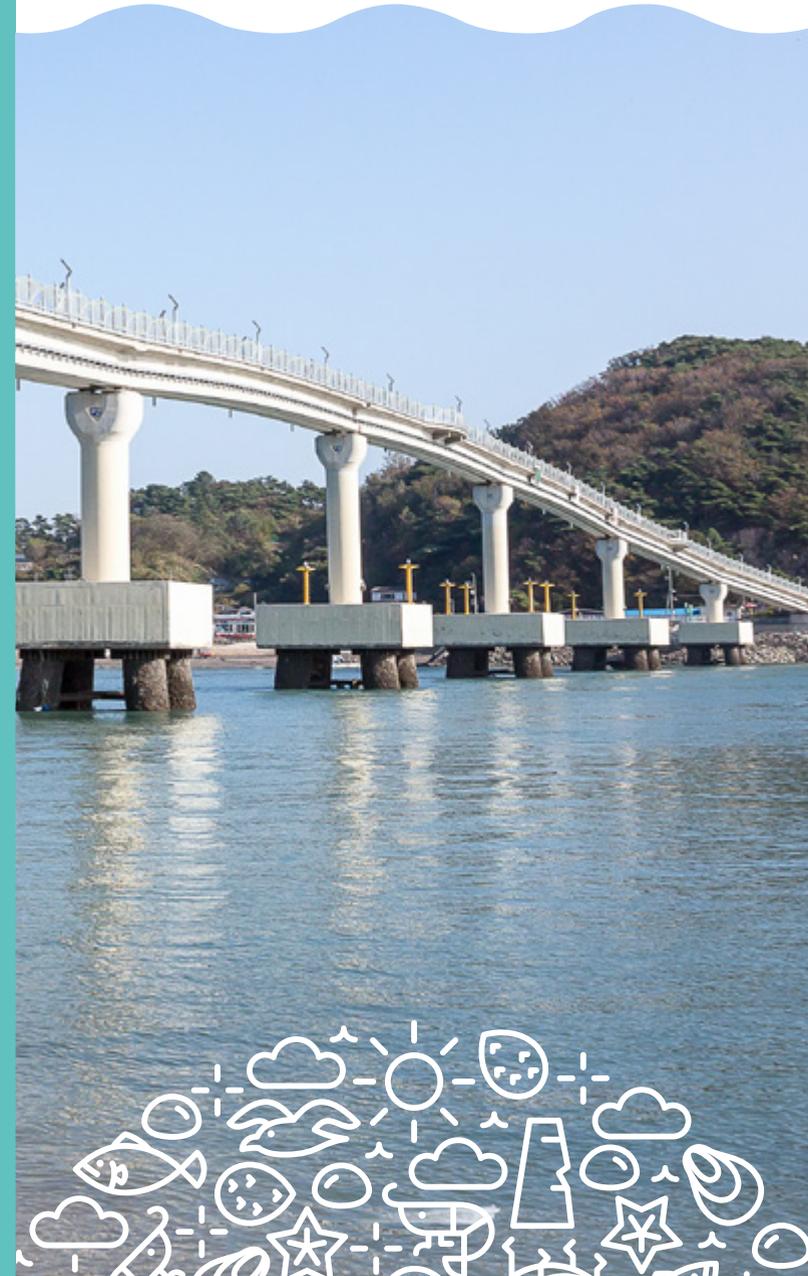
**버스**  
인천공항에서 버스 2-1 or 222번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인천 중구 잠진도길 146

### 무의도 큰무리선착장 - 광명항

**마을버스**  
30분 간격 (배 시간에 맞춰서 운행)

**문의전화**  
-관광정보 안내 1330  
-무의도해운(배 운항 시간) 032-751-3355  
-국립해양조사원(조석시간 문의) 1588-9822  
-인천관광공사 032-832-3031  
-인천중구관광진흥실 032-760-6480



## 소무의도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옛 이름은 '떼무리섬'이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간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섬 주민들에 따르면, 300여 년 전 박동기 씨가 딸 3명과 함께 섬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딸이 기계 유씨 청년과 결혼을 하면서 자손이 번성해 유씨 집성촌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백하라는 이름의 새우를 비롯해 바다 자원이 풍부해 매우 풍요로운 섬이었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워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낚시객들도 즐겨찾고 있습니다.



## 일상이 반짝이는 섬, 소무의도

인천국제공항을 지나 배를 타고 다리를 건너 소무의도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합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과 달리 느리게 흐르는 듯한 소무의도의 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파도에 부서져 반짝이는 햇빛은 눈이 부실 정도이고, 그 가운데서 삶을 꾸려가는 섬마을 사람들의 일상도 눈이 부십니다. 한편, 소무의도에서 바라다보이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송도국제도시는 마치 바다 위에 별을 뿌려놓은 듯 수평선 위에서 반짝입니다. 한 발 물러나 바라보니, 우리가 살던 도시가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곳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 일상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곳, 소무의도입니다 ☆





## 무의바다누리길

- 1구간** 소무의인도교길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414m 길이의 교량길
- 2구간** 마주보는길 대무의도와 마주하고 있는 서쪽마을과 떼무리 선착장을 연결하는 길
- 3구간** 떼무리길 소무의도의 자연생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 당산길
- 4구간** 부처깨미길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냈던 곳으로, 주변 조망이 빼어난 길
- 5구간** 동여해변길 소무의도 동쪽마을과 맞닿은 중구 땅끝 동여해수욕장이 있는 길
- 6구간** 명사의 해변길 박정희 전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휴양을 즐겼던 고즈넉한 해변이 있는 길
- 7구간** 해녀섬길 소무의도 남쪽의 작은 섬인 해녀도를 조망할 수 있는 안산 능선길
- 8구간** 키작은소나무길 해풍을 맞으며 자생하고 있는 키가 작은 소나무 숲길

## 소무의도 8경



## 해변길

\*해변길은 썰물 때에만 걸어서 지날 수 있습니다. 조석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